

삼성전자,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5400만대...전년比 600만대 줄어

삼성전자가 31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2분기 휴대폰 판매량이 5천400만대, 태블릿은 700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작년 동기 판매량(6천만대) 대비 600만대 감소했다. 태블릿 판매량은 전년 2분기와 동일했다.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279달러로 작년 동기(325달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며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S24 시리즈는 2분기·상반기 기준 출하량 매출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등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했지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두 자리 수익성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3분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성장하고 ASP가 인상될 것"이라며 "AI 수요 확대와 신기능이 적용된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태블릿 시장은 교체 주기 사이클이 다가온 가운데 주요 밴더 신모델이 출시되며 성장할 것"이라며 "워치 시장은 지속되고 있는 건강 관련 수요에 업그레이드 수요가 더해져서 금액 기준 소폭 성장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링 시장 성장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링은 수면·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당사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영빈 기자burger@zdnet.co.kr